

지역기업 '디자인 혁신·글로벌 마케팅' 지원한다

디자인진흥원, 산업화프로젝트

지난해 참여 기업 성과사례 잇따라 미국 CES 1000만 달러 수출계약도 내달 4일 디자인 개발 기업 모집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디자인 혁신과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2023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내달 4일까지 신규 디자인 개발 지원과제에 참여할 지역 제조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기업을 선정해 지역의 디자인 전문기업과의 협업으로 제품디자인 개발 및 양산화, 글로벌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사



광주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의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벡텍프린터의 '광촉매 공기살균기(KOKKOS)' 제품.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업이다.

특히 지난해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를 통해 총 20건의 디자인개발 및 제품 양산화를 지원했는데, 벡텍프린터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낸 지역 기업들이 주목받은 바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러스 제거 광촉매 벽걸이형 공기살균장치 디자인을 개발한 ㈜벡텍프린터(대표 기운중)는 제품 디자인개발부터 양산화, 글로벌 마케팅(2021년~2022년 수출상담회 참여)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지난 1월 미국 'CES 2023' 전시에서 10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엘스아이(대표 유선호)의 '가스 안전 타이머'는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타이머류 보급사업으로 선정돼 강원, 경기, 충청, 전남·북 등 전국에 1만개를 납품하기도 했다.

맞춤형 BI&패키지 디자인 개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일텔레콤의 경우 'M-KIT 제품 브랜드화'가 영국의

Hexatronic UK사와 계약을 체결, 전년 대비 188%의 수출증가 실적을 이루는 등 성과를 거뒀다.

올해 역시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에서 양산화,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진행해 우수 제품의 시장창출 및 기업 매출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제조기업 우수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신규디자인 개발 지원' △창업기업의 지역 정착화를 위한 '창업기업 디자인개발지원' △개발된 디자인 제품의 양산화 지원 등이다.

신규디자인 개발 지원 분야는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중 제조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디자인 개발 후 양산화를 전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 디자인개발지원 과제는 창업 7년 이내의 제조기업 및 디자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디자인진흥원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신규디자인 개발지원 분야 최대 3800만원, 창업기업 디자인개발 분야 최대 2500만원의 디자인 개발 및 목업 제작비 등을 각각 지원한다.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4일 오후 5시까지 지역디자인통합플랫폼(www.rdcdp.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www.gdc.or.kr)의 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산업화 디자인프로젝트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매출 증대, 수출 등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지역 기업 및 우수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 지원,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봉사단' 출범

직원 300여명 지역사회 봉사 앞장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상생봉사단'을 출범하고 지역 사회와의 행복한 동행을 실천한다.

19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본사 상생회에서 3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GGM 상생봉사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이번에 출범한 상생봉사단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직원 30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기적인 봉사 활동과 함께 필요한 경우 수시로 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상생봉사단은 장애인 단체나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나 고아원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상시적인 환경보호 활동은 물론 수해나 가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오는 4월 봄맞이 환경보호 활동을 시작으로 5월 사랑 나눔 헌혈 행사, 여름 장마철 수해복구 지원 사업(수해 발생 시), 9월 하반기 환경보호 활동, 11월 겨울철 소외계층 연탄 지원, 12월 소외계층 김장 나눔 활동 등을 구상하고 있다.

전남신보, '도담도담 토탈케어' 운영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이달부터 금융소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담도담 토탈케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담도담 토탈케어 서비스는 도서 및 산간지역이 많은 전남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영업점이 없는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신보는 금융회사 및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함께 윈스톱 지원단을 구성, 금융 관련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현장에서 보증·대출, 교육·컨설팅, 재무상담 등 윈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격오지 지역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금융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제 1059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7 10 22 25 34 40	27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0억3316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5307만
3등	5개 숫자 일치	140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 10년간 3조원 계약

광주상의 운영, 비즈니스 거점 수도권 기업활동 지원 큰 성과 올해 1~2월 이용객 135% 증가

광주상공회의소가 서울 용산역 내에 운영 중인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사진)가 지역 기업들의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지난 10년간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를 통해 호남지역 기업들이 약 3조360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기업들의 접근성 열세 극복과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해 광주·전남·전북 3개 지자체와 호남지역 9개 상공회의소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비즈니스 라운지는 매년 각 지자체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약 6700회 이상 라운지에서 비즈니스 협상이 이뤄졌으며 수도권뿐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하는 등 비즈니스 라운지를 활용해 지역 기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서울 용산역사 4층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이 좋은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는 회의 시설 3곳과 사무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업무와 네트워킹, 휴식을 모두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으며 광주·전남·전북지역 기업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한 의료기기 제

조기업 A사의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라운지 회의실 이용을 통해 수도권 거래처를 대상으로 꾸준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재부품 전문기업 B사 역시 여러차례 회의실 이용하면서 해외 국영기업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올해 1~2월 라운지 이용객은 313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으며, 회의실 이용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231건으로 나타나는 등 라운지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회의실 및 라운지 이용을 위한 예약은 홈페이지(www.gj-jnbiz.or.kr)를 통해 가능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96-0007)로 문의하면 된다.

곽지혜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조직 안착에 최선"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 성명서 10일 시행... 지역경제 발전 기여

광주·전남 경제단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의 조직 안착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회장 나기수·사진)는 19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관련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약속'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 환영과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홀로 짊어져 왔다"면서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은 조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으로 내모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중소기업에



안겨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9년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가 시행됐지만, 원자재 가격이 이미 오른 상태에서 대기업 등에 추가로 납품대금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은 여전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가 이뤄지면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탁받을 때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받고,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그 약정서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회는 "새로운 상생 협력 거래문화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우리 지역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준비 철저 및 조기 안착 적극 참여, 혁신 활동 전개 통한 광주·전남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설립된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는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광주전남연합회,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뿌리산업진흥회,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전남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전남뿌리기업협동조합,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관련 협회로 구성됐으며,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개발·제안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